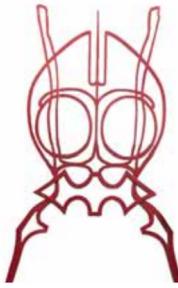


# 고향에 예술혼 '文身'



# 새 문화지형 잉태했다

▶ 문신의 거리에 설치된 '개미' 조형물.

## 사람이 문화자산이다

〈8〉 조각가 문신과 창원시 마산합포구



1970년 프랑스 심포지엄 출품 '미래가 기억해야 할 예술가' 창원시에 문신미술관 기증... 유작 110여점 등 3900점 전시 마산문화관·창동예술촌·벽화마을 등 '문화벨트' 중심 역할

아마도 조각가는 창조주를 가장 많이 닮은 예술가인지 모른다. 그들은 상상의 이미지를 실존의 형상으로 구현한다. 그들의 손은 모든 이미지를 구축해내는 신성한 '도구'다. 시원(始原)에 닿고자 하는 이들의 열망은 기없고 뜨겁다. 형상화된 조각품이 무수히 많은 언어와 사유를 담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철학자 플라톤은 예술가들을 '이데아(이상)'를 모방하는 자들이라고 폄하했다. 예술이란 완전한 실체인 이데아를 현실 속에서 모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논리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관점에 따르면 예술 또한 모방의 영역인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조형성을 향한 조각가의 열망은 숭고하고 위대하다. 그들의 손끝에서 완료되는 구성성과 추상성은 무한한 생명을 잉태한다. 이미지를 토대로 형상화된 조각은 다시 다양한 해석과 이미지를 낳는다. 조각이라는 카테고리 속에 창작 그 이상의 아우라가 투영되어 있는 건 그 때문이다.

조각가 문신(文信1923~1995·사진)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조각가다. 그는 생명의 본질을 자신만의 독특한 조형언어로 추구하고 탐색했다. 프랑스 미술평론가 자크 도타뉴는 그를 가리켜 '미래가 기억해야 할 예술가'라고 평했다. 문신은 1970년 프랑스 아외조각 심포지엄에 태양의 사자'를 출품,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데 이어 1988년에는 '올림픽 88'이라는 작품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다. 그 뿐 아니라 동양인으로는 사상 첫 동유럽 순회전시회를 열어 한국의 예술을 과시하기도 했다.

문신의 고향은 마산이다. '물의 고장'으로 알려진 마산은 무학소주, 몽고간장, 몽고정(夢古井·고려 때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 몽고인들이 판 우물) 같은 브랜드를 배출한 지역이다. 조선시대에는 조창이, 구한말에는 일본 영사관이 설치될 만큼 번다했다. 70~80년대에는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돼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견인했다.

문신미술관과 그의 고향집은 마산 시가지가 내려다보이는 무학산(767m) 줄기에 자리한다. 연안을 따라 펼쳐진 능선과 구불구불한 해안은 조물주가 창조한 조각품에 다름아니다. 이곳의 독특한 지형은 문신의 감성과 DNA속에 깊게 '문신(文身)'되어 있을 것이다. 그 화인 같은 문신(文身)이 오늘의 조각가 문신(文信)을 낳았다. 바늘로 실갠을 찢어 그림과 글씨를 새기는 작업이 문신(文身)이 아닌 단가. 그의 조각품에서 언뜻언뜻 '문신(文身)'으로 체현된 마산의 풍경과 산수가 겹쳐 보이는 것은 그 때문이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에는 문신미술관이 있다. 2010년 마산시는 창원시에 통합된 이후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로 분구되었다. 문신의 생가 위쪽에 있는 문신미술관은 그의 삶과 예술세계를 아우르는 작은 우주다. 이곳에선 지금 그의 사망 20주기를 맞아 회고전(7월 26일)이 열리고 있다.

문신미술관 개관은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파리에서 활동하던 그가 마산으로 영구 귀국한 것이 1980년이다. 그는 유년의 기억과 영감의 발원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문신미술관은 조각가 문신의 예술세계가 집약된 창원의 명소다.

이곳에 미술관을 건립하고 싶었다. '사랑하는 고향에 미술관을 바치고 싶다'는 일념은 시간과 비용, 열정을 고스란히 쏟아붓는 계기가 된다.

그의 염원대로 미술관이 개관되자 이곳은 마산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한다. 그러나 1년이 지나지 않아 그는 위암으로 생을 마감한다. 광부 출신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세계적인 조각가로 성장한 그의 생애는 한편의 드라마였다. 그의 내면에 깃들어 있었을 '경계인'으로서의 고독과 쓸쓸함이 짐작되는 대목이다. 물론 그러한 환경이 예술의 자양분이 되었겠지만 영혼에는 적잖은 상흔을 남겼을 것이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은 그의 생을 두고 이르는 것인지 모른다. 문신은 작고하기 전 미술관을 창원시에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창원시는 그의 뜻을 받들어 문화선양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2010년 10월 기존의 미술관 옆에 문신원형미술관이 건립된다. 이곳에는 문신의 분신이나 다름없는 116여 점의 석고원형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미술관은 제1전시관, 제2전시관, 아외조각전시장, 원형미술관 등 다양한 전시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유화, 채화, 드로잉, 조각, 석고원형 등 총 3,900여점의 작품과 자료가 눈길을 끈다."

정경현 학예사는 문신은 창원시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브랜드라고 단언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조각가를 배출했다는 자부심이 미술관에 오롯이 투영되어 있다. 그의 예술적 성취를 매개로 전시와 교육,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알차게 꾸려진다.

흔히 문신의 작품세계를 평할 때 '시메트리(symmetry)' 원리를 빼놓을 수 없다. 좌우대칭의 공간적 구조를 의미하는 이 원리는 나무줄기나 잎이 전체와 유기적 관계를 이루면서 성장함을 전제한다. 모든 자연 만물은 원형적으로 대칭의 세계를 이룬다.

그러나 정 학예사는 "문신은 '시메트리'의 '비시메트리'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예술적 안목이 남달랐다"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인체나 동물, 식물은 환경의 영향으로 좌우 대칭에 약간의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생전의 문신은 "소의 등에 파리가 붙으면 꼬리를 치는데 양쪽을 골고루 치지 않는다"는 말로 생명성, 창조성, 우주성을 강조했다.

문신미술관이 자리한 인근에는 마산문화관, 창동예술촌, 벽화마을 등이 이웃한다. 창원의 문화벨트의 한 가운데에 바로 문신미술관이 있다. 한 사람의 조각가가 창원의 문화지형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광부였던 그의 아버지가 '광맥'을 캐기 위해 고단한 삶을 마다하지 않았다면, 그는 고향 마산에 예술혼을 '문신(文身)'하기 위해 뼈저린 고통을 회피하지 않았다. "노예처럼 작업하고 신처럼 창조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는 마침내 아름다운 신화가 되었다.

창원=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문신미술관 내부에 전시되어 있는 다양한 조각작품.



창동예술촌에 있는 문신의 거리.



문신의 거리 벽면에 부착된 미니 화분들.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 전천후 시공성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 대한건축사협회 |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대리석질감, 대리석조형, 풍나무, 스텔라워치, 벽면(대형/중형/소형)

시공후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